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 안된다

사상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열흘 연휴 동안 해외여행도 사상 최고였다. 살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일년 365일 언제 가보아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입출국 사람들로 붐빈다. 옛날에는 수화여행이라든가 신혼여행으로 기껏 해야 경주나 제주도 가는 것이 전부였다. 가히 격세지감(隔世之感)의 세월이다.

내가 느낀 우리나라가 잘 사는 현실을 좀 독특하게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 해외여행의 대중화, 둘째, 승용차의 2천만대 이상 보유, 셋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화장실의 화장지 비치. 이를 생각해 본 것이다.

나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영화 '남한산성'을 본 것이 가장 머리에 남는다. 지금 천만 관객을 넘는 영화로 많은 감동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눈시울을 여러 번 훔치면서 권력과 전쟁에 짓밟히고 죽어가는 힘없는 민초들의 삶에 가슴이 먹먹했다. 인간과 역사,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이다. 예술이란 이렇듯 감동과 교훈을 준다. 그래서 인생은 짧아도 예술은 길다고 한다.

우선 정치권에서도 영화를 본 소감이 다르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측 사람들은 외교적 노력으로 전쟁과 참극을 피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고, 못 먹고 헛벗은 백성들만 죽어가는 시대적인 참상에 가슴 아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무능한 지도자(인조)의 잘못이 크다고 개탄했다. 약소민족으로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되고 분단되는 등 우리나라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같다고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관점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남한산성' 영화는 약 500년 전, 병자호란 중인 1636년(인조 14) 12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남한산성에서 조선군이 청군의 공격을 막아내다 결국 실패한 전투를 다룬 내용이다.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主戰派) 또는 척화파(斥和派)의 김상헌 이조판서와 화평을 주장하는 주화파(主和派)의 최명길 예조판서는 모두 애국자였다. 김상헌은 임진왜란 참전으로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구해 주는 등 지금까지의 은혜와 의리, 명분을 중시하는 의견을 대표한다. 최명길은 명나라를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청나라의 국력과 현실을 인정하지는 의견을 대표한다.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역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관념에 매몰된 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빛나고 있다. 주전파의 김상헌의 주장대로 인조가 떠났다면,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임금과 신하,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조는 김상헌을 따를 수가 없다. 인조는 무능해서가 아니고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최명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관념과 이념의 시대, 프레임의 언어는 좌와 우, 선과 악, 정의와 불의로 나누어서 격렬해 질 수밖에 없고 대결로 나갈 수밖에 없다. 북핵과 사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좌와 우, 친미와 종북으로 격렬하게 편 갈려서 대결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격렬한 대결을부추기는 프레임의 언어를 사실(팩트)과 과학의 언어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실을 떠나서 최소불가능하고 왜곡 과장하면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면 무조건 악이고 배척되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의식과 관념을 순화시키고 전환시켜야 한다.

명나라는 문명이고 청나라는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관념 사고는

현실과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과 정책을 조절하고 적응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개인과 국가가 취해야 할 길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드문제는 북핵 문제이든 중국 편이나 미국 편이 나가 기준이 아니고 양자의 요구와 환경, 국민적 여론과 국익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사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병자호란에서도 인조가 삼전도(三田渡, 송파)에 나가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찧는 굴욕적인 삼배구고두(三拜九頭)를 하고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 두 왕자가 인질로 청에 가고 척화파의 호의한 윤집, 윤달재 3 학사가 잡혀가 참형을 당하였던 것은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은 불쌍한 민초(民草)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토를 짓밟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핵과 미사일을 두고 오가는 말쑥한 채다보면서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표현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말에 동의한다. 강력한 전쟁 반대를 주장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많이 죽고 어느 나라 땅이 초토화 되는가. 정동영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등도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전하고 돌아 왔다.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 결사반대다.

社說

가을축제 안전사고 주의해야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제 가 대거 열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람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서 개최된 축제는 510건이다. 10월에는 이들 축제의 3분의 1수준인 179건의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지난해 10월 열린 축제 중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인 축제는 61건, 100만명 이상인 경우도 '추억의 충장축제', '부산꽃축제' 등 5건이나 됐다.

대부분 축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축하공연 등이 포함돼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4년 판교 테크노밸리아의 공연장에서는 관람객들이 무대가 잘 보이는 곳을 찾아 환풍구 아래로 떨어지면서 1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06년에도 삼주 시민운동장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많은 사람이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11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행안부는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지키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하고 관람석 이외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안전선 밖으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야간 축제 시 천막 고정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폭죽 등 위험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고, 축제장 내 위험요소는 진행요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축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유의는 너나 할 것 없이 중요하다.

축제에 축제로 끝날 수 있도록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我 藝 黍 稷
재주 예서
기장 서
피 직

我 藝 黍 稷

뜻: 나는 기장과 피를 심는 일에 열중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추수기 농기계 사고예방 위해 점검확인 생활화 해야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어 황금들판은 풍성하지만 자칫 주의를 게을리 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요즘 수확기에 접어들어 농기에서 농기계 등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가

급적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긴 옷을 입고 장화(등산화)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 및 모자(스프레이), 백반 등을 준비하여 뱀·독사·물쥐·진드기 및 벌레 등 해충들에 공격을 방지하는 등 예방만이 현명한 최우선 대책이 아닌 것이다.

구급·구조활동을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대처요령을 숙

지하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 예방 요령은 사용 기계 종류에 따라 머리보호를 위한 장구를 착용토록 한다.

농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상해방지용 모자 및 작업복을 착용한다.

농기계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및 주·야간 도로주행시 관련법규를 지켜 안전운행한다.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시 반드시 미끄럼 방지 붙은 판을 사용하고 전복, 추락 등에 주의한다. 사전점검 및 조정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특히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등 농기계의 야간운전, 농로주행 등 주의할 점과 작업 중 주의사항을 스스로 생활화 하여 각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농기계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